군산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 반대 촉구 결의문

최근 미공군 군산기지 활주로 사용료의 무리한 인상요구는 한미 상호 신뢰에 불신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며 미군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0만평의 광활한 토지를 자기네 땅처럼 사용하면서도 사용료조차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서 군산미군기지사용에관한협정(MOA) 체결이 만료되어 12월 7일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군측의 일방적인 활주로 사용료의 3-4배 인상요구는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듯한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볼때 활주로 사용료 인상은 항공요금 인상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군산시와 전북도의 경쟁력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미군측의 기지사용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축규제와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유,무형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항공의 활주로 사용료 인상요구는 어불성설로서 현재 군산기지 민간항공기의 이·착륙시 활주로 사용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군산미군기지사용에관한협정(MOA)을 전면 재수정하여 즐것을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1997. 11. 11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